

나주시 3600억 통합하천사업 선정...새 '영산강 시대' 연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호안정비·저류지 개량·관로 정비
강변스포츠 시설 조성 등
수변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정 수준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본선 심사에 오른 46곳의 지자체 중 전남 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과정을 거쳐 나주 영산강을 포함해 총 22곳(국가하천18곳·지방하천4곳)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나주시는 공모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나주대교-영산교, 공산 다야들 일원 영산강 약 6km구간(총면적 3.8km²·114만9500평)의 치수-이수-수질환경-친수 확보를 위한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2032년까지 10년 간 총 사업비 360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호안정비, 저류지 개량, 하천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강변 스포츠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윤병태 나주시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영산강 국가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원도심과 영산포, 혁신도시를 잇는 생태하천 벨트 구축을 목표로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민선8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낙점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유채꽃 만개한 나주 영산강 둔치 전경.

'치수 안전성 확보', '하천 수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영산강 전체 구간의 45%를 차지하는 나주시의 지

리적 특성, 천혜 생태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환경부와 국회, 전남도 등에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 결과 전남도 1순위 사업으로 본선 심사에 진출한 나주시는 지난 7일 세종보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본선 심사에서 마한 문화와 영산강을 테마로 한 1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은 이날 환경부 발표를 통해 최종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윤병태 시장도 본선 심사장을 찾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영산강 지역통합하천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통합하천사업을 통해 강을 사이로 단절되었던 원도심과 영산포, 혁신도시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수질-환경 개선과 더불어 집중호우로부터 치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류지 기능과 특성을 살린 국가생태정원, 여가시설을 조성해 영산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 가겠다"며 "나주를 키워낸 영산강이 다시 한 번 나주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3박4일 나주읍성 살기'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선정

전통·인문·예술·자연·미식 등
5단계 걸친 체류형 관광상품



나주읍성에서 열린 한옥 체험 프로그램.

나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내년도 체류형 관광 상품인 '나주읍성 3박4일 살아보기'를 새롭게 추진한다. 나주시는 최근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생활양식 등을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둔다. 관광 프로그램은 한달·일주일 살기 등 관광 수요에 맞춰 '지역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사업의 골자다. '나주읍성 3박4일 살아보기'는 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며 '전통·인문·예술·자연·미식' 5단계를 체험 해보는 힐링형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3년 간 국비 3억원 등 총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인력거투어 ▲천연염색(쪽) ▲영산강 황포돛배 투어 ▲나주밤상·배양갱 ▲고택 음악회 관람 ▲산림치유활동 등으로 구성했으며 한국관광공사 컨설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

화순사랑상품권 내년에도 10% 할인 유지

상품권 사용 가맹점도 확대

카드 발급과 충전도 가능해 지난 2019년 발행 후 매년 사용금액이 늘고 있다.

화순군이 지역 자금 역의 유통 방지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화순사랑상품권을 내년에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화순군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특별 할인 판매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화순지역 농·축협, 광우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28개 업무대행 금융기관에서 구매 및 환전이 가능하다.

화순군은 특별 할인 10% 유지와 함께 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상품권 발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올해와 같은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내년에도 가계 부담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강진군, 전남도 식량·원에 업무 평가 대상

강진군이 2022년 전남도 식량·원에 업무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식량·원에 평가는 식량 및 원예 분야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식량정책분야와 원예산업분야, 아열대농업분야 등 3개 분야 14개 항목에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강진군은 이번 식량·원에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에 올랐다. 이로써 올해 농정평가 최우수상, 농식품유통평가 우수상 등 2022년 전남도 농업분야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강진군은 농터작물재배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 쌀 적정 생산 면적을 위한 농터작물 면적 확대를 도모했으며 강진의 대표적 작물인 쌀귀리를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쌀귀리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제외돼 겨울철 호우 및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군은 귀리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등록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수요조사와 평가를 거쳐 농가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온 결과 내년부터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지속적인 시설하우스 지원으로 사계절 식재료 및 친환경 야채류 생산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및 과수 통합마케팅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등 스마트 농업 분야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6개 법인이 선정됐으며, 첨단 자동화 시스템 기술 확산으로 미래 농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28년째 代이은 '부자 기부천사' 화제

이양면 임규복씨 쌀·라면 기탁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이웃 도와



임규복(오른쪽 두번째)씨가 기부한 백미(20kg) 40포대와 라면 20박스.

20년 넘게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화순의 부자(父子) 기부천사가 세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주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이양면 임규복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과 라면 백미(20kg) 40포대와 라면 20박스를 이양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선행이 돋보이는 것은 지난 2020년까지 20년 동안 기부해 온 부친 임형노씨의 뒤를 이어 3년째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임씨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3년 전부터 본

인인 손수 경작한 쌀과 라면을 기부해오고 있다. 아버지 임형노씨는 타지역에서 기부를 해오다 지난 2010년 고향으로 귀농한 이후에는 직접 재배한 쌀과 고구마 등 농산물을 기탁했다. 임규복씨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기탁받은 쌀과 라면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등 불우이웃 6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삼숙 이양면장은 "해마다 지역주민을 위해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신 임형노-임규복 부자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원 전공노 감사패

공무원 상생 발전 기여 공로



회 민사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원(일반행정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최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군 의원 중 공무원과의 상생 발전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자 2022년도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이남오 의원은 민원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이로 인해 군민들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지난 11월 '함평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함평군의회 제277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장흥군 대통령상 수상

장흥군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청소년정책 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청소년활동-참여활성화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소외계층 청소년 돌봄 및 청소년 보호 강화 등 중점과제 4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군은 2021년 청소년안전망을 신설하고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으로 노후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장학회, 장애학생 장학금 신설 '눈길'

올 일반학생 70명에 장학금 지급

금'을 조성했다.

담양장학회가 장애 학생장학금을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 출연기관인 담양장학회는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 '장애 학생 장학금'을 별도로 조성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담양에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장애인)이다. 담양장학회는 기금 모금액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정할 계획이다. 담양장학회는 현재 97억원의 일반학생 장학기

금'을 조성했다. 올해는 70명에게 1억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전국 지자체 중 장애 학생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곳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장학회가 장애 학생장학금을 신설기로 한 데는 장학회 이사장인 이병노 군수의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장애 학생들과 가정에 힘을 북돋고자 장애학생 장학금을 신설했다"며 "담양장학회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는 버팀목이 되도록 더욱 건실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